



Analyst 김도하 · 02-3773-8876 · doha.kim@sk.com

Issue Comment

- ✓ 실손상품 3,382 만건 중 손보사가 2,759 만건 보유
- ✓ 그 중 93%의 상품이 손해율 120%를 상회
- ✓ 해당 상품은 '19년 6~12%의 요율 인상이 예상되며, 이는 손보사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

보험: 실손보험 판매 비중 및 손해율 현황 점검

- 금융감독원, 2018년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 현황 발표. 노후실손 및 유병자실손을 제외한 일반 실손상품의 보유계약은 총 3,382 만건이며, 이 중 82%인 2,759 만건을 손해보험사가 보유함 (생명보험사 보유계약 623 만건)

- 실손상품을 판매시기별로 나누어 ①표준화 전, ②표준화 후, ③신실손으로 구분하면, 손보사 기준 계약건수는 ② (1,591 만건) > ① (975 만건) > ③ (193 만건), 위험손해율은 ① (134%) > ② (120%) > ③ (80%) 순으로 나타남. 즉 보유계약 비중과 위험손해율로 볼 때, 실손 손해를 악화의 주범은 ①표준화 전 및 ②표준화 후 상품임을 알 수 있음

- 문재인 케어로 인한 민간보험사 실손상품 수혜로 당초 요율 인상이 예상되었으나, 기존 손해를 악화를 고려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동반 반영하는 방안이 최근 발표됨. 결국 비중이 높은 ①표준화 전 및 ②표준화 후 상품의 경우 2019년 초 6~12%의 요율 인상이 예상되며, 이는 손보사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2018년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2019년 초 예상 요율 변화

구분	상품 내용	계약건수 (비중*)	위험손해율**	'19년초 예상 요율 변화
표준화 전 ('09.9)	- 자기부담금 0% - 갱신주기 5년 상품 위주 (비갱신 포함)	총 1,005만건 (29.7%) - 손보 975만건 (35.3%) - 생보 30만건 (4.8%)	134.1%	→ 8~12% 인상
표준화 후 ('09.10~'17.3)	- 자기부담금 10% or 20% - 갱신주기 3년 ('09.10~1Q13) - 갱신주기 1년 (1Q13~'17.3)	총 2,140만건 (63.3%) - 손보 1,591만건 (57.7%) - 생보 549만건 (88.1%)	119.7%	→ 6~12% 인상
신실손 ('17.4~)	- 상품 구조 자체의 변화 (저렴한 기본형 상품에 특약으로 도수치료, 주사제, MRI 등 보장내용 별도 추가가입)	총 237만건 (7.0%) - 손보 193만건 (7.0%) - 생보 44만건 (7.1%)	80.0%	→ 8.6% 인하

자료: 금융감독원 SK증권 / 주: *업종별 비중 별도 표기, **실손상품의 82%를 손보사가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해 손보 위험손해율만 기재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